

국산 칼라 '몽블랑' 우수성 인정

외국 품종에 비해 무름병에 강하고 구근번식력 좋아 화훼시장 침체에 농가 소득증대 기여·재배농가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진 백색칼라 국산 품종 평가회를 지난 5일 익산 팔봉 김동규씨 농가에서 실시했다. 이번 평가회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몽블랑' 6품종에 대한 품평회로 전북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화훼공판장 경매사, 익산, 경기도 여주 화

훼 재배 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칼라는 2002년 익산과 여주지역의 수출유망 작목으로 기대를 모아 26ha까지 면적이 증가했지만 무름병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2014년 13ha까지 급감했다. 무름병은 한번 발생하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화훼 농가에서는 근본적으로 병에 강한 품종 개발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09년부터 무름병 해결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업으로 육성한 조직배양묘 보급 및 몽블랑 등 국내육성 칼라종구, 토양 개량제 지원 등 시범사업을 통해 품종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과학원에서 개발한 몽블랑, 실키하이트, 화이트큐티 등 국내 육성 품종은 외국 품종에 비해 무름병에 강하고 구근번식력이 좋아 농가에서 선호하며 꽃모양이 예쁘고 꺾은 꽃 수명도 길어 시장의 반응도 좋아 화훼시장 침체에 농가소득에 효과노릇을

특히 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운정 연구사는 고급 꽃인 칼라는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주산지인 익산시와 함께 품질 향상을 위한 토양 개량과 재배 상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보급과에서도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국내육성 품종의 농가확대와 고품질 절화를 생산하기 위해 꾸준한 농가 현장 지원으로 익산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농협이 진안군지부·진안농협과 함께 식목일의 5일 진안군 안천면 노재마을에서 경관조성을 위한 묘목 식재와 하천정화활동을 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성장과 혁신산업 육성 전략' 책자 발간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최요철)는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동 책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018년 중 작성한 총 6편의 조사연구 보고서 제 1부, 2부로 나눠 수록했다.

특히, 제1부는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및 경제이슈 분석'의 내용들을 다뤘으며, 제2부는 '전북의 혁신산업 육성 전략'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동 책자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대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지난 5일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LX, 공간정보표준 서비스 서울 넘어 전국으로 확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서울시에만 제공하던 '공간정보표준 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LX는 논현동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국 광역시·도 공간정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LX의 공간정보표준 지원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알렸다. 공간정보표준의 사전·사후 검토를 지원하는 공간정보표준 지원서비스는 지난해 LX-서울시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 처음 도입됐다.

LX는 이번설명회에서 공간정보표준 관련 제도, 표준 사전·사후 검토 신청 절차, 표준지원 협약소개 등을 소개하며 LX의 공간정보표준 지원서비스의 확산 계획을 알렸다.

최창학 사장은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은 전국에서 생산된 공간정보를 하나로 이어주는 핵심 고리"라며 "LX는 국가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산물 제값 받기 통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선도

전북농협,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5일 전북 관내 하나로마트 182개를 대표하는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규모화 된 하나로마트 운영 농협이 가입 대상으로 현재 16개 농협이 가입되어 있다.

특히, 정기총회에서 선도농협협의회

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전북도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하나로마트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및 6차산업자, 마을기업 등 농업인 생산기업 상품을 적극 판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제값 받기를 통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

행하기로 했다.

선출된 임인규 협의회장(전주농협 조합장)은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착한 가격에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는 소비자농업인 상생 하나로마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하나로마트 사업은 판매농협 구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이끌어 내는 첨병이 될 것이다"며, "안전한 농식품 공급으로 소비자와 농업인이 모두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LX, 무허가축사 적법화 힘쓴 유공자 5인 장관표창

지역축량 기술 활용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지원 공로 인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개를 수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LX는 4일, 정부세종청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위

크숍'에서 LX 임직원 5인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공자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배경은 적법화 관련 지역축량업무 우선처리, 축산농가의 지역관련 민원해결, GIS·GNSS 등 공간정보 기

술 활용을 통한 업무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과 기술 지원 노력이다.

최창학 사장은 "대상축사가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LX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정책지원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5개의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지원, 교육,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에 앞장

전북농협, 경관조성 위한 묘목 식재·마을 하천 정화활동 전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진안군지부(지부장 김성훈)·진안농협(조합장 허남규)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식목일의 5일 진안군 안천면 노재마을에서 경관조성을 위한 묘목 식재와 하천정화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경관조성 활동에는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김성훈 지부장, 허남규 조합장 등 전북농협 임직원과 진안군내농민회(회장 유영권), 진안군고향주부모임(회장 송금순), 마을주민(이장 손정

현) 등 40여명과 함께, 마을주민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위해 꽃밭조성을 위한 묘목(철쭉) 식재와 쓰레기로 더러워진 마을 하천의 정화활동을 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농촌은 농업인에게는 깨끗한 정주공간과 생산공간, 도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장애인 270명 특별 채용

서류전형 간소화·생활 근거지 고려한 지역별 면접 실시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채용을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채용규모는 전국적으로 270명이며 각 지역별로 채용하여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채용은 '장애인-friendly'를 테마로 입사지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자의 편의성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류전형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인·적성 시험만 하며, 지원자의 생활 근거지를 고려한 지역별 면접을 한다.

지원서 접수는 4월 17일까지이며 온라인 인·적성 시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생활근거지, 장애정도, 업무수행경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근무지 및 직무를 배치할 예정이며,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업무맞춤 사무집기 구입 등 편의시설개선을 통해 불편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전북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